

## News

### 가계대출 막힌 은행, 이젠 기업에 '눈독'

매일경제

금융당국 압박에 가계대출을 늘리기 힘들어진 시중은행이 기업대출 확대에 역량을 집중. 기업금융 관련 마케팅 조직 확대 개편 및 대출 신청 최소 금액 낮추며 고객 유치 나선다.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585조8075억원으로 작년 말 578조404억원보다 7조7671억원 늘어났다.

### 금융권, 7월부터 매달 200억씩 서민금융 출연

헤럴드경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매달 약 200억원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정부에 내게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국회 통과일로부터 4개월 후인 7월 또는 8월 말

### 은행권 '돈줄 죄기'에 신용대출 증가세 주춤

아주경제

주요 시중은행이 석달째 3%대 신용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돈줄 죄기'가 지속되면서 경고등이 울렸던 신용대출 증가세도 진정되는 분위기.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는 중. 하나은행이 지난해 10월 신용대출 금리 3%대로 높였고, 다른 은행들 역시 2%대 후반~3%대 초반을 중심으로 등락

### 하루 2천건씩 개설되는 마통... "한도 유지하려면 50% 써라"

아시아경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소진률 낮은 마통 한도를 축소하면서 한도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대출을 일으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커진 만큼 지점에서 마통 연장 심사 시 소진률이 낮은 차주에 대해 한도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거나 한도 소진을 독려

### 중보험시장 완전 개방...삼성화재·한화생명 촉각

더 구루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보험시장을 완전 개방. 외국계 자본의 보험사 보유 지분 제한 규정을 폐지, 100% 외국계 보험사의 탄생이 가능해졌다. 중국 시장 진출해 있는 삼성생명·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국내 보험사의 현지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

### 정영채 NH투자 대표 코로나 확진에도...옵티머스 제재심 속개

한국경제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심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제재심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제재심을 완료한다는 방침

### 대출 줄이는데...금융당국 주문에도 보험사는 '역주행'

아주경제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도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약관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 보험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낮춰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 미 온라인 증권앱 로빈후드 상장 신청... "2분기 나스닥"

연합뉴스

미국의 개인 주식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23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CNBC 방송은 지난해 투자 유치 과정에서 로빈후드의 기업 가치는 120억달러(약 13조6천억원)로 평가된 바 있다고 전했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